

## 고교학점제,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안 만든다

- 학생·학부모·교사 및 대학·학계·시민단체를 망라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예정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토의·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집중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과 더불어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간담회(‘25.4~7월, 총 7회), 17개 시도별 고교(34교) 현장점검 실시, 현직 교육과정 부장으로 구성된 현장모니터링단 정례회의(3회),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 (5회)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 교육과정지원팀	책임자	팀 장	정상명 (044-203-6715)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도균 (044-203-6719)
		교육연구사	송현주 (044-203-6724)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책임자	과 장	정윤경 (044-203-6730)
	담당자	교육연구관	한세준 (044-203-6747)	

